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프로야구 2020시즌 개막이 연기되며 각 팀들의 자체 청백전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8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SK 와이번스 구단 관계자들이 자체 청백전을 위해 그라운드 정리를 하고 있다.

내달엔 프로야구 볼 수 있을까?

정부, 코로나19 감염 위험 차단
전체 프로스포츠 개막 논의 '긍정'
방역 목표치 안정적 달성
생활방역 전환 등 전제

무게를 두고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스포츠가 없는 시간들이 지속이 되고 있어서 스포츠를 아끼는 우리 국민들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 시안은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해서 긴밀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8일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6월까지 음식·관광업 등에 대한 결재의 소득공제율을 약 5배 높이기로 한 결정이 방역지침과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가 길어지게 된다면 숙박·여행업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저희 방역당국으로서도 안고 있는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방역을 통해서 코로나19를 퇴치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1차적인 목표인 것은 분명하지만 가능하다면 경제적인 또 경영상에 부담을 주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서 발표한 시책은 방역의 조건을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담겨서 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라며 "방역조치의 범위 내에서의 제한적 활동이고 경제부양의 일환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했다.

다만 김 1총괄조정관은 "최근의 확진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추세이지만 안정적인 것"이라는 말씀은 절대 드릴 수 없는 상황은 분

명하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19일까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을 결정하고 이행하고 있는 와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체육진흥공단, 코로나19로 체육지도자 필기시험 재연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20년도 전문·생활·장애인스포츠지도사 필기시험을 다시 연기한다"고 9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 4일에서 5월9일로 시험 일정을 조정했던 공단은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자격검정 2차 연기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6월 20일에 시행할 예정이었던 건강운동관리사 자격검정 일정도 미뤘다.

공단은 향후 코로나19 사태의 상황을 고려해 5월 중에 추후 일정을 공지할 예정이다. 기존 1급 스포츠지도사(전문·생활·장애인) 필기시험 접수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다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응시 비회망지는 체육지도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취소 시 응시 수수료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거듭된 시험 연기로 전국 수험생들에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수험생의 안전 확보와 혼란 방지를 위하여 자격검정 일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명실상부 체육도시로 만들 터”

조장희 익산시체육회장

“익산시를 명실상부한 체육도시로 만들기 위해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조장희 익산시체육회장은 익산 체육발전과 시민 건강을 위해 열정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대회와 전지훈련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은 물론이고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목단체와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체육이 강한 도시를 만들고, 사무국 직원들과 시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장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 회장은 의욕적으로 해내고 싶은 각종 사업(체육행사 등)은 많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추진하지 못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 대신 조 회장은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로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

실제 조 회장은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유입되지 않도록 체육공원과 미륵산 등 야외 체육시설을 사무처 직원들과 돌며 개인 위생 준수 등 코로나19 확산방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특히 익산여성체육협회 등으로부터 받은 마스크 3,000장을 체육선수들에게 전달했다.

조 회장은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친숙한 체육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건강 지키는 물론이고 시민들과 함께 웃고 웃을 수 있는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조 회장은 체육회 기반을 탄탄하게 조성하기 위해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무국의 자율성을 보장하면



조장희 익산시체육회장

서도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부서를 총무팀과 사업지원팀, 사업운영팀 등으로 세분화시켰다.

아울러 직원들과 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중이다.

조 회장은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기초가 튼튼해야 안무너지듯 체육회가 튼튼하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올버린 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익산시는 전국체전과 전국소년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코로나19로 하반기로 연기된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전국에서 체육하면 익산시”를 떠올릴 수 있도록 열정을 불태우겠다고 강조했다.

/정은성기자

도쿄올림픽 연기로 빅 사이트 대관 손실 45조원

12월 전시회 개최 등 계획 차질

2020 도쿄올림픽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년 연기되면서 올림픽 미디어센터로 사용될 도쿄 빅 사이트도 막대한 매출 손실을 안게 됐다.

일본 닛칸 스포츠는 9일 일본전시회협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도쿄 빅 사이트를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할 경우 13만개 업체의 전체 매출 손실이 4조원(약 44조7400억원)에 이르러 많은 관련 기업이 도산할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도쿄 빅 사이트는 도쿄올림픽 기간 동안 메인프레스센터(MPC), 국제방송센터(IBC)로 이용될 예정이었다.

전시장을 전 세계 방송국이 방송 송출을 할 수 있는 IBC로 꾸미는 공사는 긴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개보수 공사를 해왔다.

당초 빅 사이트는 도쿄올림픽을 마치고 올해 12월부터 다시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었으나 도쿄올림픽이 연기된 탓에 계획이 어긋났다.

일본전시회협회는 IBC 개보수 공사를 시작한 2019년 4월부터 내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끝나고 모든 시설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2021년 12월까지 총 32개월 동안 전시장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관련 기업의 손실액이 약 4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미 올해 12월 이후 도쿄 빅 사이트에 예약된 전시회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뉴시스

무주 발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